

# 17세기 建築工藝에 나타난 바로크樣式과 服飾에 表現된 造形性에 關한 考察

A Study on the Plastic Arts of the Clothes in the  
Baroque Architecture and Crafts of the 17th

숭의여자전문대학 의상과  
講師 金 榮 子  
Dept. of Clothing Soongui Junior College  
Instructor; Young Ja Kim

## <目 次>

I. 序 論	2. 工 藝
II. 바로크 樣式的 特質	IV. 바로크 服飾의 造形性
1. 바로크 樣式的 背景	1. 실 루엣
2. 바로크 樣式的 特質	2. 裝 飾
III. 바로크의 造形性	3. 文樣 및 色彩
1. 建 築	V. 結 論

## <Abstract>

The plastic arts, which has substantially been regarded as a part of aesthetic activities originated in the artistic forms, reflects interrelated aspects of the times.

With this viewpoint, this article will attempt to trac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plastic arts in the 17th of Europe, and will observe its artistic qualities and aesthetic appearances shown in the Baroque architecture, industrial arts and costume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1.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Plastic Arts and Its Artistic Qualities.
2. The Plasticity in the Baroque Architecture and Industrial Arts
3. The Plasticity in the Baroque Costumes.

## I. 序 論

벗짚으로 이어진 등근 저붕의 초가집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女人이 쪽진 머리에, 외씨 같은 비선과 고무신을 신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여기에서 한국의 고유한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여인의 의복과 초가지붕의 등근線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西洋에 있어서도 時代와 지역에 따라서 건축과 의복 상호간에 形態와 構成면에 있어서 깊은 관련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裝飾造形은 그 시대의 풍토와 조형 성격을 가장 純粹하게 표현하는데<sup>1)</sup> 이러한 조형미의 관점에서 볼 때 服飾은 人體라는 캔버스 위에 의복이라는 物體로서 表現되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역사

적 존재로서 구현되며 여기에는 本質적으로 藝術形式의 根源에 관련된 形과 色과 量感이 重要한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重視하게 된다.

또한 服飾은 建築, 工藝, 室內裝飾등과 거의 같은 조형적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時代樣式을 表現하는 뜻으로서의 17세기 바로크는 古典的이 아닌 감각적 효과를 얻으려는 繪畫的 율동감이 넘치는 美術樣式이다. 바로크(Baroque)는 「이지러진 진주」를 의미하는 말로 語源은 스페인語로 Barrucca, 혹은 폴투갈語로 Barroco에서 연유된 것이라 한다.<sup>2)</sup> 이러한 造形樣式은 服飾에 있어서 生動하는 자연적인 감정을 表現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裝飾의 表現을 루우프, 레이스, 러플 등 다양하고 풍부한 감각미를 나타내는 動的인 服飾美를 추구 하였다.<sup>3)</sup> 필자는 服飾이 藝術的 性格을 갖고 있음을 重視하여 服飾이 造形 자체의 表現이라는 觀點에서 예술양식의 저변에 共通的으로 形成되어지는 근거를 「찾아 장식의 지나치게 많았던 17세기의 文化를 背景으로 그 特質을 찾아 보고자 한다.

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바로크 造形樣式이 盛行하던 17세기의 建築과 工藝에 나타난 특징이 이 시대의 服飾美와 어떠한 相互關聯性을 갖고 있는가를 고찰하였으며, 造形樣式의 形成에 基本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요인과 함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服飾을 中心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바로크 服飾의 服飾史的인 價値를 발견하고 樣式으로서의 影響력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現代服飾이 과거복식의 影響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전개되어갈 미래의 복식을 좀더 창조적인 美의 차원에서 構想할 수 있는데 意義가 있다고 본다.

## II. 바로크 樣式의 特質

### 1. 바로크 樣式의 背景

바로크는 無限한 권력을 가진 專制君主에 의해 통치되었던 中央集權的 國家에서 반영되었던 樣式으로 르네상스 이래 近代의 性格으로 발전하여 프

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어간 17세기의 예술양식이다. 政治的으로 17세기에 들어서서 이때까지 유럽문명의 中心地로서 번영했던 이탈리아는 쇠잔해지고, 30년 전쟁으로 독일도 위력을 잃었다. 그리고 새로이 社會的으로 文化的으로 世紀의 中心이 된 곳은 스페인과 네델란드였다. 한편 英國의 進出은 17세기 후반에 네델란드를 능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7세기 말에 프랑스로 그 支配權이 옮겨지기 시작했다.<sup>4)</sup>

이와같이 17세기 政治的 흐름의 변화에서처럼, 列強의 中心세력이 옮겨지는데 따라서 그 사회적 기반에 눈을 돌릴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絕對主義의 성립과 부패, 또한 그 내부에 일어난 산업 부르주아지의 성장과 자본주의의 사회의 탄생이었다.<sup>5)</sup>

絕對主義 政治가 君主를 中心으로 貴族과 부유한 市民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서 문화도 궁중 중심이었고, 또한 바로크적 造形樣式은 絕對主義의 王權을 美化하고 誇示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新興階級으로 자라나던 부르주아들이 풍부한 金力を 가지고 왕권에 接近하여 新興貴族으로 昇格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또한 支配階級이 그 위력을 잃어갈 때에 위치를 維持하기 위하여 그 存在를 外部로부터 裝飾하여 권위를 높이려는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sup>6)</sup>

### 2. 바로크 樣式의 特質

일그러진 진주를 뜻하는 바로크는 17세기 藝術을 表現하는 명칭으로서 直線보다는 曲線의 交叉, 平面보다는 起伏의 복잡함을 즐겨 풍부한 장식성이 강한 형식으로 形成되었다.<sup>7)</sup> 이러한 바로크 조형은 先行하던 르네상스 양식이 進展 轉化하여 생긴 양식으로 르네상스를 또 다른 理想에 의하여 발전시킨 것이라 하겠다.

즉 르네상스는 理知的인 것이었고 바로크는 熱情的인 것이었다. 르네상스는 대상에서 法則을 구하였으나, 바로크는 대상을 관찰하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 법칙을 구하려 하였다.

르네상스 양식이 外面으로부터의 엄격한 규칙을 특징으로 하는데 對하여 바로크 양식은 자유로운 정신에서 噴出하는 불확정한 法則으로 形成되었다



[Fig. 1] 바로크를 특징하는 곡선과 꽃 인물의 조각적 표현

고 볼 수 있다.<sup>8)</sup> 이리하여 前者의 우아하고 調和된 모습에 對하여 後者는 울동적 감정을 基調로 한 것이 특징이었다. [Fig. 1]

動的인 것은 순간적이고 불규칙하며 자유성과 정열 奇怪등을 남게 하는 것이다. 形體로 表現하면 直線보다 曲線을 틀어지고, 당기고, 늦추고, 늘리는 方法을 同伴하여 幻覺과 錯覺을 利用하여<sup>9)</sup> 바로크의 本質인 律動感을 基調로 한 곡선의 藝術的 表現이 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선 바로크 畫家들이 明暗法으로 현저하게 動的 表現을 요구한데서 르네상스 시대가 古典的 靜的인 데 對하여 바로크의 動的인 발전이 形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타원형의 곡선을 基調로 이루어진 空間的 構成은 풍부한 量感의 外形을 形成하고, 動的이며, 극적인 바로크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時代의 전반적인 色調는 어두운 계통으로 暗青色과 褐色 深紅色 綠色이 主調를 이루었으며<sup>10)</sup> 웅장함과 화려한 造形樣式과 調和를 이루었으리라 생각된다.

### Ⅲ. 바로크의 造形性

#### 1. 建 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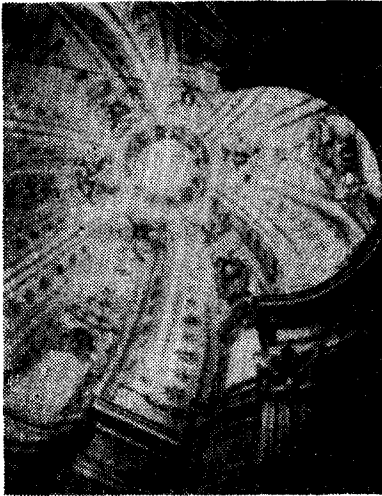
16세기 르네상스 건축은 古代를 부활시키면서

새로운 양식으로서 단순한 가운데 莊重하며, 部分과 全體와의 통일, 균형잡힌 貴族의 성격을 갖는 확고한 형식을 갖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바로크 建築은 律動感있는 空間과 立體的 變化에 풍부한 建築構造가 서로 뒤섞여서 繪畫的 效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었다.<sup>11)</sup> 바로크 건축에서 內部는 타원형의 空間으로서 형성되어 이것은 動的이며 이 時代에 전형적인 構成美로서 壁面과 天井을 彫刻으로 裝飾하고 있다. 보로미니(Francesco Borromini 1599~1667)는 바로크의 대표적인 建築家로 그가 완성한 산 카를로(San Carlo) [Fig. 2]에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파사드 자체가 中央은 볼록면으로 兩段은 오목면에 曲線을 그렸다. 建築의 構成의 要素는 완전히 無視되고 視覺的 現象으로서 繪畫的인 面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당 內部의 空間도 整頓된 美를 가춘 空間이 아니고 壁畫가 있는 動的感覺이 充滿한 空間이었다.<sup>12)</sup>

보로미니의 산 티브 성당의 穹窿에서 바로크의 복잡한 凹凸 두 양상의 곡선이 교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建築構造의 確固한 形式을 피하고 構造는 주위의 空間과 繪畫的으로 융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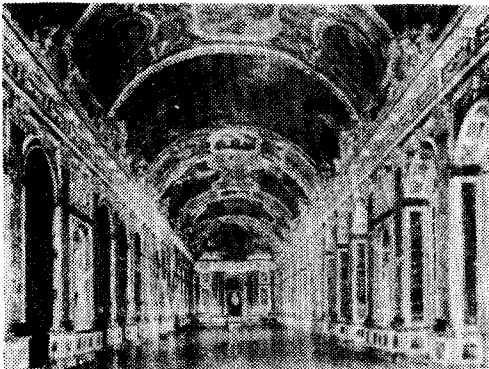
[Fig. 2] Borromini San carlo



[Fig. 3] Borromini 作 산 티브성당 도움내부

키려하고 있으니 바로 울동감을 얻으려는 바로크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또한 内部 建築도 복잡한 突出入과 曲線을 나타낸 構造는 流動的인 空間을 形成하고 다시 立體的이고 화려한 裝飾이 空間의 作用하여 空間과 建築樣式을 有機的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繪畫로서 감상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sup>13)</sup> [Fig. 3]

바로크 建築의 후기는 프랑스의 벨사이유 궁전에서 그 造形的 特質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바로크적 傾向보다는 르네상스의 계속적인 感興이 強하여 古典樣式을 理性的으로 研究하는 態度와 自由와 傳統을 살리려는 精神的 要素로



[Fig. 4] 벨사이유궁의 거울의 방



[Fig. 5] Prince Gustav Adolph c. 1655~

서 出發하였다. 또한 建築의 中心은 宗教가 아닌 中央集權下·王政下의 王과 貴族의 生活를 영위시키는 空間 形成으로서 都市의 오텔(Hôtel)이기도 하였다.

벨사이유 궁전은 이러한 전제 군주의 精神的 價値를 視覺의 世界로 높이기 위하여 美化하고 裝飾化한 바로크의 전형적 건축으로서 莊重하고 嚴肅한 것을 즐기는 太陽王 루이 14世의 威嚴을 느끼게 하는 構成이었다.<sup>14)</sup> 아취形의 높은 窓門이 마루턱까지 내려와서 정원과 室內가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으며, 内部는 彫刻과 工藝品으로 華麗한 양상불을 이루는 裝飾集團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모든 藝術을 단 하나의 目標, 즉 루이 14世의 榮光에 從屬시킨다는 그 自體가 바로크적 特質인 것이다.

“거울의 방” [Fig. 4]의 造形的 方法은 天井裝飾에서 繪畫와 彫刻이 더욱 繪畫의으로 融合되어 있으며, 벽면과 天井과는 絶緣이 區劃되어 있으나 방 全體를 장중하고 호화로운 裝飾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나 하나를 떼어서 보면 아름답지 않으나全體로서 效果를 내는 壁面과 天井의 有機的인 裝飾的 技法이 美的 感覺을 느끼게 한다.<sup>15)</sup>

이와같이 바로크 初期의 建築造形은 構造의 繪畫的인 形成에서 後期的 室內裝飾의 繪畫的인 空間美를 主體로 하였으며 이것은 18世紀 로코코의 레장스 樣式인 流動的인 曲線美를 추구한 살롱裝飾에 反映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Fig. 5]는 Gustav Adolph가 그린 Mecklenborg Gustrow 왕자의 초상화이다. 여기에서 breeches와 doublet는 풍부하고 기교적인 수법으로 옷감 전체를 자수로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sup>16)</sup> 또한 breeches는 그 폭이 넓어 마치 女性服의 스커트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여자 의상의 실루엣이 허리에서 발끝까지 흘러 내리는 듯한 풍성한 둥근 곡선을 이루는데 相應하는 볼륨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풍만함은 바로크 建築의 構成이 귀족취미의 웅장한 構造와 타원형의 공간처리로 形成되었던 調形性이 의복에 表現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헤어스타일은 구불구불한 가발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건축에서도 루이 14세의 취향 위주로 건축양식이 이루어지듯 가발도 그가 즐겨 쓰던 것으로 귀족취미를 따르기 좋아했던 그 時代感情이 일반에게까지 유행을 퍼트렸던 증거이다. 이것은 裝飾취미의 하나로서 曲線을 즐겼던 바로크의 動的感情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초상화에서 의복의 앞中心에 삼각형의 모양을 이룬 ribbon loop가 장식되어 있으며, 다리 부분에는 풍부한 장미뭉치의 loop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것은 實用的인 면보다 장식적이고 視覺的인 美를 추구했던 이 時代 조형성이 잘 나타나 있다. 즉 의복을 입어서 인체를 보호하려는 실용성보다 장식을 더욱 중시했던 이 시대 풍조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림 [Fig. 5]가 보여주듯이, 머리에서 흐르는 곡선의 부드러움은 어깨에까지 내려오고 칼라 장식끈으로 여미어져 자연스러운 線의 흐름이 이어진다. 또한 의복 전체를 자수로 화려하게 수 놓은 귀족적 분위기는 리본과 메이스의 풍부한 장식으로 陰影의 효과와 律動的인 느낌을 갖게 한다. silk stocking에 넓은 ruffles로된 페이스로 처리한 Booths의 장식미는 바로크 취미의 귀족적이고

풍부함을 즐겼던 藝術的인 造形性으로 形成되어 表現되었으며 이것은 부분 부분의 장식이全體에 통일감을 주면서 하나의 복식이라기보다 繪畫的인 感覺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크 건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本質的으로 이 時代 조형양식의 根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 2. 工 藝

17世紀 絶對王制의 威嚴을 보이기 위한 莊重한 바로크造形은 前述한 바와 같이 궁정 생활과 調和를 이루는 形態로 工藝의 發展이 展開되었다. 실내장식, 가구, 무기를 비롯하여 모든 일용품은 裝飾過多로全體로서의 調和나 材料의 아름다움이 무시되고 기품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sup>12)</sup> 이러한 것은 服飾에서도 過多한 裝飾이나 刺繡로 인하여 결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던 裝飾手法와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家具는 대체로 직선적이고 雄莊한 室內에 어울리는, 세로의 길이보다 가로의 길이보다 긴 옷장을 彫刻으로 장식을 하였다. 家具表面은 C形의 曲線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木象嵌의 技法으로 植物 動物, 人物등이 취급되었다.<sup>19)</sup> [Fig. 6]. 루이 14세 때에는 中國에서 들어온 옷칠 畫板을 使用하여 東洋風과 괴렌체



[Fig. 6] C形 곡선의 옷장

風의 대리석 象嵌이 사용되었으며 裝飾의 材料로 螺鈿등을 첨가해서 화려한 모습을 보였다.

이 時期의 모든 工藝裝飾의 特色은 圓形기둥이나 대들보의 건축장식이 없어지고 궁전 內部壁을 대리석이나, 벽걸이로 裝飾하였다.<sup>20)</sup>

貴族的인 莊重함은 金箔이나 銀箔을 즐겨사용하였으며, 金絲나 銀絲로 織物을 화려하게 수놓아 복식에도 사용하였다. 家具裝飾에도 色色을 이용한 이러한 色調는 풍부한 曲線의 리드미컬한 효과를 주었으며 가구는 實用性보다도 室內裝飾과 調和될 수 있도록 製作되었다.<sup>21)</sup> [Fig. 7]에서 화려한 의복장식에 金絲로 처리된 로브는 꽃무늬와 曲線의 연결로 부드러운 自然美를 느끼게 하는 장식이다. 가구에 표현된 金色칠과 금박장식은 의복에서뿐 아니라 구두나 장갑등에도 이용되어 귀족적인 취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바로크 조형양식수법은 工藝에서 使用된 조각적 表現이 同一한 문양으로 복식장식과 깊은 관련성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 IV. 바로크 服飾의 造形性

“우리의 집은 服飾이다.”<sup>22)</sup>라고 알랭이 말 하고 있듯이 의복과 건축을 조형이라는 同一한 線上에



[Fig. 7] 金糸의 자수로 꽃무늬와 곡선이 연결된 로브

놓고 볼 때 이들은 藝術性에서 出發하여 思潮의 흐름이 表現된 造形藝術의 屬性을 갖고 있다. 따라서 17世紀 服飾은 이 時代를 支配했던 바로크 樣式이 本質的인 基調로 形成되었음을 認識하고 服飾의 造形美에 照明을 가하고져 한다.

17世紀 服飾은 프랑스를 中心으로 絕對主義 아래 王이나 女王의 명령으로, 服飾에 關한<sup>23)</sup> 問題에 宮廷의 支配權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므로 國民들은 의복의, 種類나 形態, 生活습관이나 思想까지도 모방하려는 氣風이 強했다. 당시에 프랑스는 팡드라라는 人形과 女性雜誌를 通하여 유럽일대로 퍼져나감으로써 世界 mode의 性格을 띄게 되었다.<sup>24)</sup>

이러한 社會的 與件 아래서 規格을 無視하고 靜趣의 對立과 動感의 追究로서 自由를 얻으려는 精神은 服飾에서 量感의 豊단함과 莊麗함으로써 貴族의 權威를 나타내려 했다.

#### 1. 실 루엣

바로크 服飾의 호화로움은 바로 胴體를 合理的으로 가늘게 하여 가슴에서 허리로 흐르는 線이 가늘고 세련되게 보였으며 모드의 초점을 허리에 모아 부풀린 스커트로 흘러내리는 듯한 곡선의 아름다움과 量感의 豊부함을 느끼게 한 것이 外形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Fig. 8] 스커터트는 두벌을 겹쳐 입었는데 걸잡은 velvet이나 絹織物로서 부드러운 綉을 使用하였고 속의 스커트는 타프타



[Fig. 8] 바로크 여성복의 豊부한 량감

(taffeta)나 부로케이트(Brocade) 등 光澤이 있는 천을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刺繡나 리본 레이스 裝飾 등으로 더욱 豪華롭고 위엄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때 로브(Robe) 외에 세벌의 스커트를 입었는데 이들의 色調는 아름다운 靑양스가 豊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속의 스커트는 겉보다 밝은 色을 사용하였으며, 옷감도 겉의 스커트는 치켜 올리는 데 편리하도록 얇은 천으로 하였다.<sup>26)</sup> 이것은 여러장의 겹쳐진 스커트의 풍부한 볼륨이 당시의 웅장한 건축과 아-취형의 곡선으로 장식된 실내와 한데 어울려 바로크의 造形美를 이루었으리라 생각된다. Robe의 스커트 부분은 허리에서 주름을 잡아 발끝까지 늘어뜨렸고 이것을 뒤에서 걷어 올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Fig. 9] 로브의 뒤에 달린 train은 놀랄만큼 호화롭게 장식되기도 했는데, 王子의 결혼식에서 왕비의 것은 10~13m, 공작부인의 것은 3~5m에 달하였으며<sup>26)</sup> 궁정 내에서 國王의 앞을 지날때는 긴 자락을 왼팔에 걸치고 걸었다고 하니 이는 우아함을 즐기던 바로크 취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2. 裝 飾

바로크 造形의 特質이 繪畫的인 裝飾의 過多에



[Fig. 6] 바로크 여성복 로브의 뒤에 train 장식

있듯이 服飾도 裝飾手法의 濫用으로 獨特하고 魅惑的인 美를 表出하였음을 注視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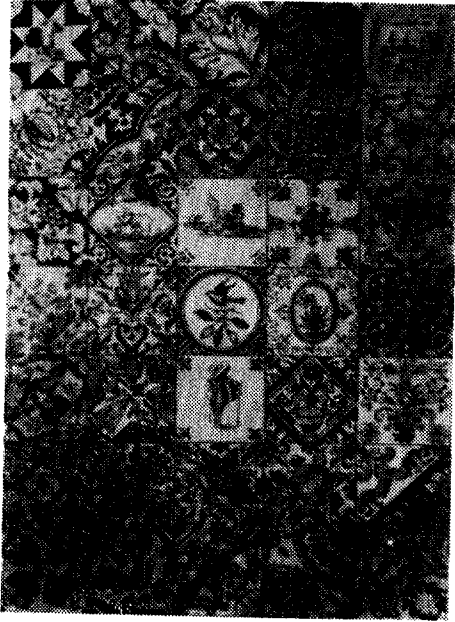
服飾造形은 構造的으로 어떤 部分을 裝飾하게 되고 따라서 이것은 결국 服飾이 統一的인 全體의 調和를 이루게 되는데 이 時代의 服飾도 人體裝飾의 部分으로서 사람의 內面的 感情이 가장 풍부하게 表現되는 얼굴의 바로 아래 部分인 목둘레와 형태에 支配的인 影響을 주고 또한 民族이나 社會階級에 따라 다르게 表現되는 소매에 더욱 많은 裝飾이 가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목둘레는 대담한 Decolletage로 넓게 파여지거나 네모형, V形으로 파여서 노출된 부분을 레이스가 달린 속옷으로 가리거나 목둘레를 얇은 천과 레이스로 호화로운 장식을 하였다.<sup>27)</sup> 가슴 中央에 많은 리본을 달았고 넓은 칼라의 주름장식이나 프릴로서 우아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었다. 이와같은 장식은 소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크고 볼록한 소매는 팔꿈치에서 살짝 잡아 맨것이라든지, 全體가 부분것을 손목에서 리본으로 매거나 또는 목이 넓고 길이가 짧은 소매부리에서 속옷의 레이스가 엿보이며, 때로는 앙가장트의 [Fig. 10] 귀여움과 부드러운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와같이 부드러운 선의 律動的인 움직임과 넘쳐흐를 듯한 주름裝飾이 만드는 陰影은 더욱 燦爛하여 貴族的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으며 이것은 形態의 부드러움과 多樣한 裝飾의 調和로 바로크의 繪畫的 造形美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바로크 時代의 自然美를 基調로한 취미는 레이스나, 리본, 화환을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生花도 즐겨 사용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胴體를 조이기 위해 입었던 폴셋트 중에 앞중심에 꽃이



[Fig. 10] 소매의 앙가장트



[Fig. 11] 17세기 여러가지 문양

시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꽃병을 넣는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sup>28)</sup>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인간을 자연에 존재로 보고 있는 자연주의적 바로크 특질을 파악하게 됨을 말할 수 있다.

### 3. 文樣 및 色彩

부드럽고 완상적인 自然의 形態를 憧憬했던 바로크 造形은 裝飾文樣에서드 꽃이나, 花환모양과 日月모양 또는 리본뭉음 등으로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室內裝飾을 비롯하여 家具, 織物, 악세사리에 당초문양이나, C形曲線으로 자유로운 動的 분위



[Fig. 12] 악세사리의 장식

기를 느끼게 응용되었다.<sup>29)</sup>[Fig. 11]

工藝品에서 사용하던 금, 은박의 장식도안은 織物에서도 金絲나 銀絲의 자수로 도안된 꽃문양이나 파상선 모티브는 당시에 유행하던 곱슬곱슬한 헤어 스타일과 조화되어 全體에 流動感을 주면서 자유로운 곡선의 動的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특히 레이스와 자수의 발달은 이러한 문양을 구두, 핸드백, 손수건, 장갑등에까지 사용하였다.[Fig. 12]

이 시대의 전반적인 主調色은 深紅色과 綠色 褐色이었다. 대체로 어두운 色調로 이루어 졌으며 궁정에서는 暗靑色 赤, 紫, 黃, 褐色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服飾에도 사용된 基調色으로 특히 赤色은 高貴한 色으로 루이 14世의 침실이나 女性服의 로브에 赤色이 애용되었다. 또한 褐色은 루이 14世의 기호색으로 벨사이유궁 실내의 색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색이다. 이것으로 色이 古代부터 계급의 상징이나 시대적 감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結 論

以上과 같이 바로크 造形樣式을 이루었던 17世紀 社會의 背景을 中心으로 樣式의 特質과 建築과 工藝에 표현된 造형적 性格이 어떻게 服飾과 관련되어 나타났는가를 살펴 보았다.

“藝術은 生命의 表出이요 生活의 表現이다<sup>30)</sup>”라고 한 것처럼 造形樣式은 本質的으로 藝術形式에 根源을 둔 美的活動으로써 그 時代의 性格을 가장 明白하게 나타내고 있다. 바로크는 17세기의 絶對王制의 王權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던 造형형식으로 貴族의인 生活感精이 호화롭고 장식적이며, 자연을 基調로한 曲線의 構成을 形成한 양식으로 건축, 공예, 복식에 共通된 性格을 내포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建築에서 貴族의인 감정을 표현했던 建築構造의 莊重하고 豪華로움은 服飾에서 스커트의 풍부하고 볼륨있는 형태를 구성하였으며, 曲線을 基調로한 타원형의 空間構成은 服飾構成에서 hourglass silhouette과 puff sleeve의 부드러운 곡선적 구성을한 點이다. 또한 建築內部는 天井과 壁面



을 조각과 tapestry 등의 多樣한 裝飾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統合된 繪畫的 效果로 표현되었으며, 服飾에서 리본, 레이스, 러플 등의 다양한 裝飾의 기교로서 이루어지는 울퉁퉁한 부드러운 線의 表出은 여러가지 色의 調和가 주는 寢安스런 繪畫的인 느낌을 주게 하였다.

또한 家具와 裝身具등에 도안되었던 문양이 自然物을 素材로 하여 C形曲線의 動的 느낌을 주었던 것은 服飾에서도 꽃문양이나 金絲銀絲의 사용으로 귀족적인 우아함을 나타내었던 점등은 이 시대의 造形的 藝術意志의 屬性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이 바로크의 建築이 構成이라는 建築의 특성보다 視覺的美를 추구하였던<sup>31)</sup> 것처럼 服飾에서도 의복의 實用性보다 裝飾性에 치중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이 時代 美術思潮에 기인한 것이라 보겠다.

이러한 服飾의 裝飾수법은 그 영향이 다각도로 現代의상에도 trimming의 效果로 表現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크 服飾造形이 하나의 時代性을 초월하여 永遠히 服飾 Design에 있어서 뿌리가 되어 水分과 營養分으로 供給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張文戶, 服飾美學, 世運文化社, 1977, 140.
- 이영환, 西洋美術史, 박영사, 1979, 261.
- 田中千代, 服飾事典, 同文書院, 1969, 670.
- 이영환, *op. cit.*, 260.
- 이항성, 世界美術全集, 문화교육출판사, 7권, 1962, 190.
-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近世編), 光生館, 昭和 49年, 104.
- 丹野郁, 總合服飾史事典, 雄山閣出版 Co., 1980325.
- 윤장섭, 西洋建築史, 문운당, 1969, 250.
- 이항성, *op. cit.*, 200.
- Dr. Ludmila Kybalova *The Pictorial Encyclopedia of Fashion*. Czechoslovakia, 1973 190.
- 윤정섭, 서양건축사, 技文堂, 1981, 227.
- 下中邦彦, 世界美術全集, 平凡社, 18권, 15.
- Ibid.*,
- H.W. 젠슨著, 金濯洙外譯, 美術의 歷史. 삼성출판사, 1978, 496.
- Gérald, van der kemp. Éditions D'art Lys, Versailles, 1978, 20.
-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339.
- 이경성, 工藝通論, 修學社, 1979, 153.
- 이경성, *Ibid.*, 153.
- 김용진, 西洋工藝史, 學文社, 1976, 110.
- 배만실, 裝飾美術史, 梨花女子大學校, 1975, 214.
- 嘉門安雄, 世界美術全集, 角川書店, 33권, 昭和 38, 206~7.
- Alain. 方坤譯, 幸福論, 東西文化社, 1977, 106.
- Boucher, Francois. *Histoire Lu Costume*. Flammarion, 1965, 251.
-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光生館, 昭和 49, 106.
- 村上憲司, 西洋服裝史, 創元社, 昭和 50 123.
- Boucher, François *op. cit.*, 185.
- 신상옥, 西洋服飾史, 修學社, 1981, 127.
-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New one Volume Edition 3,000 Illustration, 1968, 551.
- 若宮信晴, 裝飾文様の歷史, 文化出版局, 1980 212.
- 金泰午, 美學概論, 正音社, 1955, 3.
- 白琪洙, 藝術論, 黑潮社, 1966, 167.